

“호흡기내과 없어서”… 결핵 환자 진료 공백

서귀포의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문의 퇴직하자 2년 넘게 활동성 진료 못해
제주의료원, 대체 의료진 투입해 치료 ‘대조’

취약계층 결핵 환자 지원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이 전문의 부재로 2년 넘게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결핵은 몸에 결핵균이 침입해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결핵 안심벨트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2곳이다. 결핵 안심벨트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무자격자,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결핵 환자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 환자 발생 비율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4배 이상에 이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치료비를 포함해 간병인, 영양간식 비용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끝까지 치료 받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결핵 안심벨트 의료기관은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지난 2021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은 전담 간호사와 의료진을 두고 잠복 결핵과 활동성 결핵 환자를 둘다 진료·치료해왔지만 지난 2024년부터는 잠복 결핵

환자만 받고 있다. 활동성 환자와 달리 잠복결핵 환자는 몸 안에 결핵균은 갖고 있지만 증상이 없어 전염성도 없다.

서귀포의료원은 2023년 말 결핵 환자를 전문 진료하는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퇴직한 후 충원을 못해 활동성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169명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이 신고한 환자가 1명에 그친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주의료원도 호흡기내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잠복 결핵과 활동성 결핵 환자를 모두 수용해왔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제주시내 유일 안심벨트 공공의료기관인 점을 감안해 내과 교수를 투입해 결핵 환자를 둘다 진료·치료해왔다”며 “활동성 결핵 환자가 내원하면 음압병실(기

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병실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격리 병실)에 2주간 격리해 치료하고 취약계층으로 확인되면 진료비와 간병비를 모두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완치될 때까지 6개월간 진료비를 지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의료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결핵과 같은 감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여전히 호흡기내과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자 올해 3월부터 가정의학과에 결핵 진료를 맡기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활동성 환자를 진료하는데 감염내과를 투입할 순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해당 의료진도 여력이 없었다”며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계속 구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어제 제주시·서귀포시 올해 첫 열대야

작년에 비해 17일·8일 늦어

제주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 사이 최저기온이 제주 25.9℃, 서귀포 25.9℃를 기록했다. 올해 첫 열대야는 제주의 경우 지난해(6월 20일)에 비해 17일 늦었고, 서귀포의 경우 지난해(6월 29일)보다 8일 늦었다.

한낮 더위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북부·동부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서귀포시 동부까지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귀포시 동부에 폭염주의보를 내

렸다. 앞서 제주시 북부·동부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산천단 31.4℃, 제주 30.4℃, 김녕 29.1℃, 한림 27.1℃, 서귀포 26.4℃ 등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시 동부·북부, 서귀포시 동부를 중심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전망했다. 또 이외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내다봤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교육장 공모 환영…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돼”

전교조 제주지부, 8일 성명 통해 환영 입장 밝혀

제주도교육청이 18년 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장은 교육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리더여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에겐 교육철학을 함께 실현할 인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공개 경쟁과 검증의 절차를 선택했다”며 “교육장을 교육철학과 역량

으로 검증받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제주 교육 인사 문화의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함께 지원자의 학교 비전 등을 공정하게 검증하고 심사위원 구성에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를 일회성 인사로 끝내선 안 된다. 운영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축적해 제주 교육의 새로운 교육 리더 선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채무 도민에 법률 지원”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소

제주지역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8일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제주시 제주지방방병원 인근에 있는 제주법조타워 빌딩에 들어섰다.

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채권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도 함께 지원한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꽃망울 터트린 연꽃 8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두모저수지에 연꽃이 활짝 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교육재정 신속 집행 전국 2위

도교육청 집행률 80.4%

제주도교육청이 2026년 상반기 교육재정 신속집행에서 집행률 80.4%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목표치인 65%와 자체 목표치인 75%를 모두 넘는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전국 7위에서 5계단 상승

한 결과다. 특히 건설비 집행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이 기간 건설비 집행액은 총 6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억원(17%) 증가했다. 건설비의 경우 자재 구매, 장비 대여, 현장 인력 고용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제주서 꺼내지는 재일한인들의 삶의 기억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서울대 일본연구소 13일 학술대회

재일제주인을 비롯한 재일한인들의 삶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제주에서 꺼내진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다.

이번 학술대회에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대 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바다를 건너 디아스포라: 재일 한인의 삶과 장소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조강연에선 오사카공립대 이치지 노리코 교수가 ‘재일제주인의

이주와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학술대회는 모두 2부로 구성됐다. 1·2부에선 각각 ‘바다를 건너 표상과 이향의 경험’ ‘장소의 기억과 공동체의 계승’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학술대회에 앞서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업무협약도 같은 날 진행된다. 두 기관은 이를 기점으로 재일제주인, 재일한인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축

수 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김 영 배
(서귀포타리클럽 제34대 회장)

해양산업 육성 유공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서귀포로타리클럽
회장 고 창 환 외 회원 일동

축

수 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김 영 배

해양산업 육성 유공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문화대학 2기
회 장 이 한 열 외 회원 일동

축

취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 정 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체육회 임원회

축

선 발

CONGRATULATIONS

대한민국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



문 다 희
(조부 : 문군하 · 조모 : 좌정옥)
(부 : 문성용)

대한민국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 선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상준 가족 일동